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7월 18일)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홍대선원에서 진행 중인 행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6명의 대학생들이 주지 준한 스님과 함께 본지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보우(미국 유타대), 김아린(이화여대), 김영호(제주대), 준한 스님, 유솜이(경상대), 이승민(서울대), 신수용(성신여대).

스펙쌓기·수행 동시에…이번엔 '행턴' 뜬다

〈행자+인턴〉

홍대선원 여름 행턴프로그램 운영
행자-인턴 개념 연계 사찰 인턴쉽
서울대 등 국내외 6명 대학생 참여
SNS 리뉴얼 등 사찰 발전에 한몫
준한 스님 "新 단기출가 모델 제시"
행턴들 "따듯한 공동체 생활 만족"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MZ세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서울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 이하 홍대선원)이 진행하고 있는 '행턴'이 새로운 단기출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오롯이 수행과 습의에 집중된 기존의 단기출가가 아닌 사찰 운영과 불사 기획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사찰공동체 안에서 수행과 신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홍대선원은 올해 5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주현우, 이하 대불련)와 MOU를 체결하고 'JustBe 인턴십 行턴(행자+인턴, 이하 행턴)'을 기획·시행 중에 있다.

행턴은 한국불교계 최초의 '대학생 사찰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출가했지만 아직 계를 받지 않은 행자(行者)와 정규직 채용 전 실습 과정을 밟는 인턴(intern)의 합성어다. 현재 행턴에는 △서울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경상대 △제주대 △미국 유타대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에서 모인 6명의 대학생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13개국에서 온 스님과 스태프·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여러 불교 신행 프로그램 기획과 사찰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단기출가 모델을 제시하고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송산하 홍대선원 스태프와 함께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으니, 이들에게 불교 수행과 실무 경험을 제공해 성장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며 "청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계속 발견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8월 12일 찾은 홍대선원 공양간 '비빔라운지'에서는 주간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스님,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맡아 진행 해보면 어떨까요?" "함께 진행하는 게 더 나아보입니다." 행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스님과 스태프들은 이를 경청하며 그들을 이끌었다.

행턴들은 △프로그램 기획 보조(유솜이) △시설관리 보조 및 옥상정원 작물 관리(김영호·이승민) △미디어·홍보(서보우·신수용) △선원 청소·세부 디자인 작업(김아린) 등 각자 전공과 적성에 맞는 업무를 분배받았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만큼 열정도 자연히 고양됐다. 행턴들은 8월 21~23일 낙산사에서 열리는 '낙산사&저스트비 영어 서핑 템플스테이' 기획에 참여해 '힙(Hip)'한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는 홍대선원 인스타그램 리뉴얼을 위한 기획에도 참여하며 도량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무만 하는 건 아니다. 홍대선원의 모토가 '수행 놀이터'인 만큼, 평소 하고 싶었던 수행과 신행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다. 행턴들은 홍대선원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스스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수행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그 중 매주 한 번씩 진행되는 '수업('수'행을 '업'무처럼 하자)' 프로그램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매주 수업을 통해 불교 신행 활동과 수행 그리고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갖는다. 2부로 구성된 수업은 1부에 참선, 독경, 108배 등 전통적인 불교 수행을 체험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수행하는 시간을 갖는다. 2부는 '마음 나누기' 명상 시간이다. 홍대선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일주일간 자신이 겪었던 일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 이를 듣는 자신의 마음까지 되돌아본다. 해당 프로그램은 바쁜 업무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자신의 '수행'을 '업무'처럼 꾸준히 정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홍대선원 행턴들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 행턴은 "따뜻한 공동체 생활"이라고 밝힌 서보우(22, 미국 유타대, 영화영상학과) 행턴은 "다양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좋았다"며 "사찰 불교 청년회처럼 큰 조직도 좋지만, 행턴처럼 가족 같은 도반·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추천했다.

3면에 계속

현대불교신문·로터스월드 미얀마 정수시설 1호 완공

간월암 사부대중 정성 모아
파욱 명상센터에 설치 완료
마을주민 등 1300여 명 혜택



파욱센터에 건립된 정수 시설 1호기.

각종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선물하기 위한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의 제1호 정수시설이 완공됐다.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의 제1호 정수시설이 7월 31일 미얀마 레구 타운십 지역에 위치한 파욱 명상센터(Pa-Auk Meditation Center)에 지어졌다. 정수시설은 서산 간월암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마련됐다.

이번 정수시설 준공으로 명상센터에서 생활하는 출가 수행자(116명)와 재가 수행자(103명), 봉사자 등 301명은 물론 주변 마을주민 1000여 명까지 언제든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정수시설은 다기능필터와 RO필터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우물 관정에서 취수한 물을 정화하는 데 탁월하다. 특히 5시간에 물탱크 1000L를 채울 수 있던 기존 정수시설과 달리 한 단계 발전된 기능으로, 2시간이면 물탱크 1000L를 채울 수 있다. 정수시설 설치 전후 수질검사에서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간월암 주지 정경 스님은 "경내 앞마당에 설치된 '세계일화' 모금함에 모인 불자들의 정성을 뜻깊은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며 "물은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미얀마 국민이 안전한 식수환경으로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문의 : 02-725-4277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공모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창간 30주년을 맞아 재도약하는
현대불교신문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 경영자를 모십니다.

- 공모 직위 : 사장
- 임　　기 : 3년
- 자격 요건
  -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 불교언론사로서 정론직필하며, 세상과 소통 공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자
  - 국제 감각과 뉴미디어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서명 날인)
  - 자기소개서 1부 (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4매 내외)
  - 경영계획서 1부 (후보자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작성해야 함, A4용지 6매 내외)
  - 이력서에 기재한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출 기간 등
  - 제출 기간 : **8월 21일(수)부터 9월 4일(수)까지**
  - 제출 방법 및 제출처 :
    – 등기우편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길 23-26 현대불교 부산지사)
    – 이메일 (wiseway3@hanmail.net)
  - * 응모 접수는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면접 심사 (필요 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 기　　타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모는 본인 이외에 추천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사(02-2004-8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제53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및 역사문화관 개관식

귀의삼보하옵고,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전국 각 처에서 여여히 정진하고 계실 동문스님들을 운문의 도량으로 초대합니다. 총동문회와 역사문화관 개관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역사문화관 개관식 : 불기 2568(2024)년 9월 25일(음력 8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개관식 장소 : 운문사 역사문화관 정문앞 뜰
승가대학 총동문회 : 불기 2568년 9월 25일(음력 8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운문사 선열당
문　의 : 054)372-8800(운문사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석우 합장

